

## 접두사 ‘생-, 날-’의 의미 분석

최 형 강\*

### <차 례>

- |                    |                    |
|--------------------|--------------------|
| 1. 서 론             | 3. 접두사 ‘날-’의 의미 기능 |
| 2. 접두사 ‘생-’의 의미 기능 | 4. 결 론             |

### 1. 서 론

접두사 ‘생-’은 한자어 접두사를 다루면서 연구된 바가 있지만 ‘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전체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많은 영역에서 의미를 공유하는 접두사 ‘날-’과의 비교도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둘이 공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비교하는 본격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접두사 ‘생-’과 ‘날-’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접두사 ‘생-’과 ‘날-’이 가진 의미들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에 나온 사전의 하나인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비슷한 의미 영역을 가진 한자어 접두사 ‘생(生)-’과 고유어 접두사 ‘날-’ 중에서 한자어 접두사인 ‘생-’의 의미 영역이 더 세분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두사 ‘생-’의 의미를 다음의 6가지로 기술하였다.

---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1) ㄱ. ‘익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생김치/생나물/생쌀.  
 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생가지/생나무/생장작.  
 다. ‘가공하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생가죽/생맥주/생모시.  
 르. ‘직접적인 혈연관계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생부모/생아버지/생어머니.  
 모. ‘억지스러운’ 또는 ‘공연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생고생/생과부/생떼/생이별/생죽음/생초상/생트집.  
 바. ‘지독한’ 또는 ‘혹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생급살/생지옥.

‘생-’은 ‘익지 않은, 마르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하는 접두사이다.<sup>1)</sup> ‘생-’이 익혀서 먹는 식품류의 명사와 결합하면 ‘익지 않은’의 의미를 추가하고, 물기가 있는 구체명사와 결합하면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며, 열처리 등의 가공 처리가 가능한 구체명사와 결합하면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ㄴ)의 ‘직접적인 혈연관계인’이라는 의미 기술은 ‘가공을 하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와의 유연성(motivation)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의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1ㄱ)과 같이 ‘억지스러운’이나 ‘공연한’이라는 의미 기술만으로는 ‘익거나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와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본의미와 주변의미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제시된 의미에 해당하는 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1ㄱ)의 ‘생과부, 생이별, 생죽음, 생초상’ 등에서의 ‘생-’이 ‘억지스러운’이나 ‘공연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생죽음’은

1) 접두사 ‘생-’을 ‘날-’과 유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로서 다루는 것이지 한자 ‘생(生)’의 쓰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한자 ‘생(生)’의 기본의미는 ‘낳은’이지만 접두사 ‘생-’의 기본의미는 ‘익지 않은’인 것이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어이 없이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 때의 ‘생-’은 ‘억지스럽게 어떤 일을 하는’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이 없이 일어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예의 의미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또한, (1ㄷ)과 같이 ‘생급살, 생지옥’ 등에 나타난 ‘생-’의 의미를 사전에 기술된 ‘지독한’이나 ‘혹독한’과 같이 기본의미와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생급살’은 ‘급살이 예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급살’이나 ‘원래의 급살보다 더한 급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생지옥’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이러한 ‘생급살’과 ‘생지옥’의 ‘생-’에는 ‘다른 것을 섞거나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와의 관련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지독한’이나 ‘혹독한’과 같이 기본의미와의 관련성을 배제한 채 의미를 제시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또, ‘생급살’과 ‘생지옥’이 가진 의미를 고려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 항목에 놓은 ‘생급살’과 ‘생지옥’이 ‘지독한’이라는 의미 아래에 함께 묶일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접두사 ‘날-’의 의미는 ‘생-’보다 간략하게 다음의 4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 (2) ㄱ.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것 / 날고기 / 날김치 / 날기와 / 날두부 / 날장작.
- ㄴ.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바늘 / 날소일 / 날장구.
- ㄷ.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상가 / 날상제 / 날송장.
- ㄹ. ‘지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강도 / 날건달 / 날도둑놈.

접두사 ‘날-’도 (2ㄱ)과 같이 ‘익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가 충실하게 유지된 예와 함께 (2ㄴ, ㄷ)과 같이 주변적인 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가 있다. ‘생-’과는 달리 ‘날-’의 기본의미는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이 함께 묶여 기술되어 있다. 후행하는 체언의 종류에 따라 말릴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고 가공할 수도 있으므로 함께 묶여서 기본의미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ㄷ)의 '지독한'은 그러한 기본의미에서는 유추할 수 없는 의미이다. 사전에서와 같은 기본의미를 무시한 기술 방식이 아니라 '날강도, 날건달, 날도둑놈' 역시 기본적으로는 강도나 건달이나 도둑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즉 다른 특성에 의해 순화되지 않은 강도나 건달이나 도둑놈이라는 의미로 제시해야 '날-'이 가진 기본의미에서 확대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특성에 의해 순화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강도나 건달, 도둑보다 더한 강도성(強盜性)이나 건달성, 도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날-'의 예도 점점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2ㄴ)의 '날바늘, 날소일, 날장구'가 함께 묶일 수 있는 예인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예가 제시되는 3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는 접두사의 의미들을 나열하는 데에 충실할 뿐, 접두사의 의미와 그 의미를 가진 예들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주변 의미가 그 기본의미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전들에서도 '생-'과 '날-'의 의미들을 제시하였을 뿐, 기본의미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주변 의미를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sup>2)</sup>

이렇게 '생-'과 '날-'의 주변 의미가 관련성이 없이 제시된다면 '생-'과 '날-'이 유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생-'과 '날-'이 주변 의미까지 완전히 동질적일 수는 없

2) 『연세한국어사전』에는 '생-'의 의미가, 『우리말큰사전』에는 '날-'의 의미가 『표준국어대사전』 보다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기술 방식은 『표준국어대사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사전적인 처리뿐만이 아니라 이양혜(2004:280~283)에서도 현대국어의 '생-'과 '날-'이 가지는 주변 의미들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처리하였다.

지만, ‘생-’과 ‘날-’을 유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미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생-’과 ‘날-’의 기본의미가 동질적임을 보여 주었다면, 본고에서는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생-’이나 ‘날-’이 가진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주변의미를 해석하여 기본의미와 주변의미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생-’과 ‘날-’이 공유하는 세부적인 의미들과 그 의미로 쓰인 예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접두사 ‘생-’의 세분화된 의미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접두사 ‘날-’의 의미 기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생-’이 가질 수 있는 기본의미와 주변의미들을 ‘날-’을 통해 재확인하고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이 되지 못한 ‘날-’의 특징적인 의미를 추출해냄으로써 ‘날-’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접두사 ‘생-’의 의미 기능

접두사 ‘생-’이 결합된 파생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수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생-’ 결합어의 대부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생-’과 결합하는 어근이 한자어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였다.<sup>4)</sup> 한자로 쓰인 ‘생(生)’의 결합 방식이 아니라 접두사로 쓰이는 ‘생-’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행하는 어근이 한자어일 경우에는 접두사 ‘생-’이 포함된 표제어 중 ‘생각(生角),<sup>5)</sup> 생모(生母)’와 같이 ‘생-’에 후행하는 한자어 어근의 자립성이 부족한 것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생금(生金), 생매장

4) 여기서는 남기십·고영근(1993:196)에 따라 파생을 위해 접두되는 ‘생-, 날-’을 제외한 부분을 ‘어근(root)’으로 보았다.

5) ‘생각(生角)’은 ‘삶지 않은 짐승의 뿔’을 의미한다.

(生埋葬)’ 등과 같이 자립적인 쓰임이 가능한 어근이 쓰였을 때에만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고유어와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후행하는 어근이 자립성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을 참조하여 ‘생-’이 가진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생-’이 가진 1차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와 그러한 기본의미로 쓰인 ‘생-’과 결합한 파생어들은 다음과 같다.

- (3) ㄱ. 익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생감(과일), 생거름, 생과실, 생과일, 생김치 등  
 ㄴ.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생가지, 생것,<sup>6)</sup> 생고기, 생나무, 생딱지,<sup>7)</sup> 생삼, 생소나무, 생잎, 생장작 등  
 ㄷ. 가공하지 않은, 열처리를 하지 않은:  
 ① 생가죽, 생감(웃감), 생것, 생고무, 생금(生金), 생땅, 생머리, 생명주, 생모시, 생목, 생배, 생소리, 생실, 생칠 등  
 ② 생감자, 생것, 생고구마, 생고기, 생과일, 생과일주스, 생굴, 생꿀, 생나물, 생닭, 생도라지, 생동태, 생된장, 생매추, 생미역, 생밤, 생새우, 생쌀, 생오이, 생우유, 생전복, 생젓, 생지황, 생콩 등

‘익지 않거나 물기가 마르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는 ‘생-’이 가진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의 예들에서 ‘생-’은 구체명사와 결합하여 그러한 명사에 물리적인 의미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생-’은 주변어미로 확장되면서 추상명사와 결합할 수도 있고 그 의미도 추

6) ‘생것’의 ‘것’은 의존명사이지만 자립형태소이면서 실질형태소이므로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생것’이 ‘말리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는 ‘원래는 세 가지 모두 말린 것을 불러 썼으나, 요즘은 싱싱한 것이 많고 말린 것은 손질이 복잡해 전복과 홍합은 생것을 쓴다. 단, 해삼은 생것을 요리하면 녹아버리므로 말린 것을 불러 써야 한다. <세계일보, 2007년 2월 16일>’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생딱지’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딱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것은 상처의 진액이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기가 마르지 않은’에 포함하였다.

상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익지 않거나 물기가 마르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은’은 미묘한 의미 차이와 후행 체언의 차이를 고려하여 따로 제시하였지만 하나로 묶어도 무방한 기본의미이다. (3ㄷ)은 ‘생-’에 후행하는 명사가 식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생-’이 먹을 수 없는 대상과 결합한 것은 ①에 제시하였고, 먹을 수 있는 대상과 결합한 것은 ②에 제시하였다. ‘생것’과 같은 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①에 포함될 수도 있고 ②에 포함될 수도 있다.

‘생과일’은 익지 않은 과일, 즉 ‘풋과일’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가공을 하지 않은 과일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의 존재는 (3ㄱ)의 의미와 (3ㄷ)의 의미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의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과일주스’와 같이 ‘생과일’에 ‘주스’가 결합하면 그 때의 ‘생과일’은 익지 않은 과일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다른 것을 첨가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과일만을 사용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때의 ‘생-’은 ‘가공을 하지 않은’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아래의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생고기’는 (3ㄴ)과 (3ㄷ)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생고기’는 ‘말린 고기’와 대비하여 물기를 말리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열처리 등을 통한 가공을 하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생-’이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로 쓰여 ‘생고기’는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다음은 ‘생-’이 1차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좀 더 간접적이고 주변적인 의미로 쓰인 예들이다.<sup>8)</sup>

8) 유현경(1999:194)에서도 한자어 접두사인 ‘생-’이 다의성을 통해 접두사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4) 살아 있는: 생가지, 생것, 생균, 생나무, 생매장, 생목숨, 생무덤, 생미사, 생백신, 생사당, 생소나무, 생수절, 생열녀문, 생옹이,<sup>9)</sup> 생위패, 생이별, 생잎, 생초목, 생파리, 생화장 등
- (5) 직접적인 혈연관계인: 생부모, 생생가, 생아버지, 생어머니, 생외가 등
- (6) ㄱ. 처음인: 생길, 생낫, 생땅, 생목, 생방송,<sup>10)</sup> 생병어리, 생소리, 생필름,<sup>11)</sup> 생흙 등  
 ㄴ. 서투른: 생술 등

‘생-’은 ‘살아 있는, 산 채로,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4)와 같은 파생어를 이룰 수가 있다. ‘살아 있는’ 역시 ‘익히지 않은’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자 ‘생(生)’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살아 있는’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증거는 ‘생것’과 ‘생가지, 생나무’와 같은 예로 확보될 수 있다. ‘생것’은 ‘물기가 마르지 않은 것’이나 ‘열처리를 통해 가공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3ㄴ, ㄷ)에도 포함될 수 있고, ‘살아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4)에도 포함될 수 있다. ‘생가지, 생나무’의 경우 (3ㄴ)과 같이 ‘물기가 마르지 않은 가지나 나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4)와 같이 ‘살아 있는 가지나 나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sup>12)</sup> ‘생나무’와 함께

9) 목재에 단단히 붙어 있는 웅이를 의미하는 ‘생옹이’는 ‘죽은옹이’의 반의어인 것을 고려하여 ‘살아 있는’의 의미를 가진 ‘생-’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10) ‘생방송’은 가공을 하지 않은 방송이라는 의미로 (3ㄷ)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미리 녹화하거나 재생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6ㄱ)에만 제시하였다. 이는 ‘방송’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대상과 관련되는 구체명사와 결합하는 (3ㄷ)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11) ‘생필름’은 노출하거나 감광하지 않은 필름을 의미하므로 사진을 찍는 데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6ㄱ)의 ‘새 것인,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에 포함될 수 있는 예이다.

12) ‘생가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살아 있는 나무의 가지’로만 뜻풀이가 되어 있으나 접두사 ‘생-’의 예로는 ‘물기가 마르지 않은’에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생가지’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생소나무’도 (3ㄴ)과 (4)의 의미가 관련되어 있음을 보이는 예이다.<sup>13)</sup> ‘생잎’도 사전에 ‘살아 있는 잎’으로만 그 의미가 기술되어 있으나 ‘마른 잎’과 대비되어 쓰일 수 있으므로 (3ㄴ)에도 포함될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3ㄴ, ㄷ)과 (4)의 유연성(motivation)은 이들이 다의 관계로 묶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4)의 ‘살아 있는’이라는 의미를 한자 ‘생(生)’이 가진 기본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접두사 ‘생-’의 주변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4)</sup> 한자뿐만이 아니라 ‘생것, 생나무, 생목숨, 생무덤, 생소나무, 생옹이, 생잎, 생파리’와 같이 고유어와 결합하는 접두사 ‘생-’은 한자 ‘생(生)’과는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4)에서 ‘백신(vaccine)’이나 ‘미사(missa)’와 같은 외래어와 결합하는 ‘생-’의 분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살아 있는’이라는 의미는 ‘익지 않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4)를 기본의미에 포함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4)의 ‘살아 있는’이 ‘수절’이나 ‘이별’ 등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명사와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접두사 ‘생-’이 ‘익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파생어를 이룰 때에는 뒤에 결합하는 어근들이 물리적인 대상성을 가지므로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어근과도 결합할 수 있는 (4)의 의미를 기본의미가 확대된 주변의미로 설정한 것이다.

13) ‘생소나무’는 ‘살아 있는 소나무’와 ‘벤 지 얼마 안 되어 채 마르지 않은 소나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14) 이광호(1994:32~33)에서도 한자어에서 온 접두사는 그 어원이 되는 독립적인 한자어에 비하여 어형 변화나 의미 변화 및 약화가 있고 그러한 접두사는 결합하는 어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독립적인 한자어 ‘생(生)’을 어원으로 삼는 접두사 ‘생-’은 어근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접두사로 쓰이면서는 그 기본의미를 ‘살아 있는’이나 ‘낳은’이 아니라 ‘익지 않은’으로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5) 이광호(1994:43)에서는 ‘생-’을 한자어와 고유어에 두루 붙는 접두사로 분류해 놓았으나 ‘생-’은 한자어와 고유어뿐만이 아니라 ‘미사’나 ‘백신’과 같은 서구의 외래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뿐만이 아니라 외래어와도 결합하는 한자어 접두사는 ‘강(強)-’, ‘냉(冷)-’ 등 극히 적은 수가 존재한다.

‘생수절’은 남편이 살아 있는데도 수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4)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후술하겠지만 (9)의 ‘공연히 하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즉,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공연히 하는 수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이별’의 ‘생-’은 (4)의 의미로 쓰여 살아 있는 혈육들이 겪는 이별을 의미할 수 있고,<sup>16)</sup>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이별이라는 아래의 (7)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생이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이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공유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5)의 ‘직접적인 혈연관계인’도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기본의미가 주변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확대는 ‘생-’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날-’에서는 이러한 확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5)의 예들도 한자 ‘생(生)’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예들이다.<sup>17)</sup> (5)는 한자 ‘생(生)’이 가지는 ‘낳은’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자 ‘생(生)’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5)의 예들은 접두사 ‘생-’의 주변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생산성이 매우 낮고 한정된 몇몇의 친족 명칭과만 결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 ‘생-’의 기본의미에서 확대된 주변의미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4)의 ‘살아 있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아버지, 생어머니’와 같이 고유어 ‘아버지, 어머니’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한자 ‘생(生)’의 예가 아니라 접두사 ‘생-’의 예로 처리할 수 있다.

(6)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6ㄱ)은 ‘처음인, 처음 그대로인, 새 것인,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트이지 않은, 날 때부터인’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6ㄴ)은 ‘행동이 서투른’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6) 『연세한국어사전』에도 ‘생-’이 살아서 당하는 불행을 의미하는 예로 ‘생이별’이 제시되어 있다.

17) 노명희(1998:93)에서도 ‘생부모, 생아버지, 생어머니’ 등의 예들에서의 ‘생’은 ‘날 생’의 의미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생병어리’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병어리인 사람을 가리킬 때는 (6ㄱ)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병어리가 아니지만 병어리처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아래의 (8)에 제시된 다른 예들과 같이 ‘그것과 다를 바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병어리인 며느리’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생땅’의 ‘생-’은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는 개간하지 않은 땅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3ㄷ)의 ‘가공하지 않은’과 관련될 수 있고, 처음 그대로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6ㄱ)의 ‘처음인,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과도 관련될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6ㄱ)의 의미는 (3ㄷ)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6ㄱ)은 기본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의 확보는 (3ㄷ)과 (6ㄱ)이 다의 관계로 묶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6ㄴ)이 가진 ‘서투른’의 의미는 이전에 해 보지 않은 일이어서 서투르다는 점에서는 (6ㄱ)의 ‘처음인’과 같이 묶일 수 있는 것이나 ‘처음인’ 자체보다는 ‘처음이어서 서투른’이라는 의미가 더 응용된 주변 의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처음’이라는 의미 아래 묶일 수 있어서 (6ㄱ, ㄴ)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생-’이 가진 1차적인 의미와 1차적인 의미에서 확대된 주변 의미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었다. 아래에서는 ‘생-’이 가진 기본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그 주변성이 강조되는 의미로 쓰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7) 어이없이 일어난: 생귀신, 생급살, 생벼락, 생병신, 생이별, 생죽음, 생초상 등

18) ‘생땅’이 가진 ‘한 번도 거름을 주지 아니한 채로 있는 땅’이라는 의미는 북한어로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되어 있을 뿐 적절한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생땅’의 ‘생-’에 ‘거름 등의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를 설정하지 않았다.

- (8)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생과부, 생병어리, 생병신, 생지옥, 생징역, 생초상, 생홀아비 등
- (9) 공연히 하는: 생가슴, 생강짜, 생거짓말, 생걱정, 생겁, 생고생, 생고집, 생구역질, 생돈, 생판전, 생떼, 생머리, 생배, 생빛, 생소리, 생수절, 생술, 생야단, 생억지, 생엄살, 생입, 생잡, 생젓, 생질색, 생침, 생침(生鍼), 생코, 생탈, 생트집, 생편잔, 생호령, 생힘 등
- (10) 죄가 없는: 생귀신, 생도둑, 생도적, 생목숨, 생매장, 생벼락, 생사람, 생육, 생징역 등
- (11) 쓸데없는: 생입 등

‘생-’은 물리적인 대상을 익히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음을 기본의미로 가지는데, ‘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한 일의 결과로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함으로써 주변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익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이 없이 일어난’이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공연히 하는’, ‘죄가 없는’, ‘쓸데없는’ 등은 ‘생-’이 가진 기본의미인 ‘익지 않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의미들 중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생-’이 ‘어이 없이 일어난’의 의미로 쓰였을 때와 ‘그것과 다를 바 없는’의 의미로 쓰였을 때이다. ‘어이 없이 일어난’이라는 의미와 ‘그것과 다를 바 없는’이라는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의미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유연성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두 의미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생초상’이다. ‘생초상’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갑자기 치르게 된 초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초상과 다름없는 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전자는 실제로 초상이 있는 경우이지만, 후자는 초상과 같이 슬픈 일을 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초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12) ㄱ. 사고로 갑자기 생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ㄴ. 사업 실패로 생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12ㄱ)은 실제로 초상을 치르는 경우이고, (12ㄴ)은 초상과 같이 슬프고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경우이다.<sup>19)</sup> 준비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초상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익은 상태라면 생초상은 준비된 상황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익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진짜 일어난 초상이 완성된 사건이라면 그러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은 무르익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12ㄱ)에서 보이는 ‘어이없이 일어난, 준비나 가공이 없이 이루어진’이라는 의미와 (12ㄴ)에서 보이는 ‘그것과 다름없는, 준비나 가공이 완성된 상황과 유사한’이라는 의미는 ‘익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이라는 1차적인 의미에서 확대된 주변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의미 차이는 다의어적인 차이일 뿐, 전혀 다른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초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7)의 ‘어이없이 일어난’과 (8)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의 차이가 ‘생-’에 후행하는 명사가 실현되었느냐, 실현되지 않고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었느냐의 차이인 것이라는 점이다.

‘생과부, 생홀아비’는 ‘과부와 같은 상태, 홀아비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상태’를 의미하는 (8)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sup>20)</sup>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 있는 과부나 홀아비’라는 의

19) ‘생초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병신’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여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상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20) 여기서는 ‘생과부’의 의미 중 ‘남편이 있으면서도 과부와 다름없는 여자’라는 의미만을 취하였다. 이는 ‘생홀아비’를 ‘생과부’의 반의어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생과부’가 가지고 있는 ‘약혼자나 갓 결혼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의미는 취하지 않았다. ‘홀아비’에는 그에 대응할 만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처리는 같은 조건에서 두 단어를 다루기 위해서임을 밝혀 둔다. ‘약혼자나 갓 결혼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는 ‘처음부터인’의 의미인 (6ㄱ)과 관련된 수도 있을 것이다.

미로 (4)에 포함될 수는 없다. ‘생과부’나 이에 대응되는 ‘생홀아비’의 경우 실제로 과부나 홀아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살아 있는 과부나 홀아비’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는 어렵다.

(9)는 ‘공연히 하는, 일부러 하는, 억지를 부리는’의 의미를 가진 ‘생-’이 쓰인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에서의 ‘생-’은 기본의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가슴을 졸일 만한 상황을 완전한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그 완전한 상황이 마련되지 못한 것을 완전히 익지 않은 상황과 연결한다면, ‘가슴을 졸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졸이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생가슴’의 ‘생-’이 기본의미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공연히 하는’은 ‘익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이라는 의미로 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수절’은 남편이 살아 있는데도 공연히 하는 수절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4)의 의미와 (9)의 의미를 공유하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수절’과 같이 (4)의 ‘생-’과 공유하는 예가 존재하는 것은 (9)의 ‘공연히 (일부러) 하는’이 ‘생-’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것임을 방증(傍證)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생것, 생나무, 생소나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적인 의미인 (4)의 ‘살아 있는’은 기본의미인 (3ㄴ, ㄷ)의 ‘마르지 않은’이나 ‘가공하지 않은’과 다의 관계로 묶일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생머리’는 파마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머리를 의미할 때에는 (3ㄷ)에 해당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연히 아픈 머리를 의미할 때에는 (9)에 해당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젓’의 ‘생-’도 가공하지 않은 젓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3ㄷ)과 관

21) 노명희(1998:93)에서는 ‘생-’이 가진 ‘공연한, 엉뚱한, 까닭 없는’ 등의 의미는 한자 ‘생(生)’이 지닌 원의미와 거의 유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연한, 엉뚱한, 까닭 없는’은 접두사 ‘생-’의 기본의미와는 관련성을 가지는 주변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접두사 ‘생-’의 ‘익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와 ‘공연히 하는’이라는 주변 의미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완전한 상황이 아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련될 수도 있고 일부러 때는 젓이라는 의미로 쓰여 (9)와도 관련될 수 있다. ‘생-’이 주변적인 의미로 쓰인 (9)와 기본적인 의미로 쓰인 (3ㄷ)이 공유하는 이와 같은 예들도 ‘가공하지 않은’과 ‘공연히 (일부러) 하는’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의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기본의미로 쓰인 ‘생-’과 결합한 ‘머리’와 ‘젓’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만 주변의미로 쓰인 ‘생-’과 결합한 ‘머리’와 ‘젓’은 그러한 구체적인 대상성이 약화되는 특성이 있다. (9)의 의미로 쓰인 ‘생-’과 결합한 ‘머리’와 ‘젓’은 각각 ‘두통’이나 ‘젓을 먹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소리’는 남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는 괜한 말이라는 (9)의 의미를 가진 ‘생-’이 결합한 말이기도 하고, 노래를 할 때 가다듬지 않고 목에서 (처음) 내는 소리라는 의미에서는 (6ㄱ)의 ‘생-’과 관련된 ‘생-’이 결합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노래를 할 때 기계적인 효과음을 쓰지 않은 소리’로 쓰일 때에는 가공하지 않은 소리를 의미하므로 (3ㄷ)의 ‘가공하지 않은’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예도 ‘생-’이 가진 기본의미 (3ㄷ)과 주변적인 의미인 (6ㄱ), (9)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생소리’가 가진 추상성과 비유의 정도는 (3ㄷ), (6ㄱ), (9)로 갈수록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주변적인 의미도 서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데, (11)에 제시된 ‘쓸데없이 놀리는’이라는 뜻을 더하는 ‘생-’이 쓰인 ‘생입’은 크게 보아서 ‘공연히 하는’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9)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생귀신’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라는 의미로는 (7)에 해당하는 예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라는 의미로 보면 (10)에 해당하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sup>22)</sup>

‘생매장’의 ‘생-’은 살아 있는 사람을 그대로 땅 속에 묻는다는 의미

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생귀신’에 ‘살아 있는 귀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다른 사전에서는 이와 같은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살아 있는 귀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 의미를 취하지 않았다.

에서는 (4)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허물을 씌워 일정한 사회 집단에서 몰아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할 때에는 (10)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생목숨’도 (4)의 의미로 ‘살아 있는 목숨’을 의미할 수도 있고 (10)의 의미로 ‘죄가 없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할 수 있다. 주변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4)보다는 (10)의 주변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단어에서 더 주변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더 비유적인 표현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아래의 예들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의미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주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다치지 않은: 생눈, 생니, 생사람, 생살, 생자식 등

(14) 다른 것이 없는: 생고기, 생과일주스, 생소주, 생술 등

‘다치지 않은, 아무런 탈이 없는, 멀쩡한’의 의미를 가진 ‘생-’ 역시 어떠한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는 기본의미에서 유추가 가능한 주변의미이다. ‘생사람’은 ‘어떤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 (10)의 ‘죄가 없는, 죄가 없이 당하는, 아무 이유가 없이 당하는, 억울하게 취급받는’에 포함될 수 있고, ‘몸이 튼튼하여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 (13)에도 포함될 수 있다. ‘생눈, 생니, 생사람, 생살, 생자식’ 등은 처음 그대로를 유지하여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면 (6ㄱ)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13)의 예들은 모두 사람이나 신체의 일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6ㄱ)과는 어근의

23) 노명희(1998:93)에서는 ‘생매장’의 ‘생-’에 ‘억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생매장’ 자체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죄가 없이 당하는’의 의미가 있는 ‘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생매장’은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9)에는 포함될 수 없다.

24) ‘생목숨’은 ‘생매장’보다는 구체성과 비유성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기는 하지만, (4)의 의미로 쓰인 ‘생목숨’은 ‘끓다’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와 주로 어울리고 (10)의 의미로 쓰인 ‘생목숨’은 ‘빠앗다’ 등의 비유적으로 행위를 표시하는 동사와 주로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류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접두사 ‘생-’의 의미 중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는 접두사 ‘날-’ 뿐만이 아니라 ‘덴-’도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는 기본의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 관련성을 쉽게 포착할 수는 없으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가공을 위한 다른 도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기본의미와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고기’는 (3ㄴ)의 ‘말리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3ㄷ)의 ‘불로 가공하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생-’이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생소주’는 안주 없이 마시는 술로 이 때의 ‘생-’은 ‘술의 맛을 돋우기 위한 다른 가공품이 없는’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술’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 ‘푹술’과 같이 ‘맛도 모르면서 마시는 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맛도 모르면서 마신다는 것’을 술맛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른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때의 ‘생-’은 (6ㄴ)의 ‘서투른’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가 나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공연히 마시는 술이라는 의미로도 ‘생술’이 쓰일 수 있으므로 이 때의 ‘생-’은 (9)의 ‘공연한, 공연히 하는’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술’은 안주 없이 마시는 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생-’이 (14)의 ‘생소주’와 같이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접두사 ‘생-’이 ‘날-’보다 결합 빈도가 낮은 의미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그 특성만 가진: 생급살, 생도독, 생도적, 생시치미 등

‘생시치미’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 모두 시치미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시치미의 특성만을 가지

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치미보다 더한 시치미라는 의미에서 ‘순화나 가공될 수 없는 성질이 그대로 있는, 다른 특성이 없이 그 특성만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보다 더한’이라는 의미를 설정하였다.

‘생급살’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급살이라는 의미로는 (7)에 해당될 수 있고 급살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급살보다 더한 급살이라는 의미로는 (15)와 관련될 수 있다. ‘생도둑’과 ‘생도적’은 도둑이나 도적의 특성만 있어서 원래의 도둑이나 도적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원래의 것보다 더한’이라는 의미로는 ‘생-’이 쓰이는 예보다는 ‘날-’이 쓰인 예가 사전에 좀 더 많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 의미 기능을 다루도록 하겠다.

(15)와 관련된 예로는 ‘생초보’와 같은 신조어도 있다.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지만 2003년에 발간된 국립국어원의 신어 목록 중 ‘생초보’는 어떤 분야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매우 서툰 사람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는 ‘초보’의 특성만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생-’이 ‘처음인’의 의미로 쓰기 위해서는 ‘생-’과 결합하는 명사에 ‘처음’의 의미가 없어야 하는데 ‘초보’에는 이미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생초보’는 ‘처음이어서 서툰 초보’보다는 ‘일반적인 초보보다 더한 초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3. 접두사 ‘날-’의 의미 기능

본고의 기본 전제는 한자어와 고유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접두사 ‘생-’과 ‘날-’이 기본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미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즉, 생산성의 차이로 해당되는 파생어의 수가 다를지라도 ‘생-’과 ‘날-’의 주변의미는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 점검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두사 ‘날-’ 결합어도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목록을 참조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사전 기술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생-’이 가진 ‘익거나 마르거나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1차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는 ‘날-’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아래에 제시된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전 검색 결과로는 접두사 ‘생-’이 쓰인 표제어보다는 ‘날-’이 쓰인 표제어의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접두사 ‘날-’의 생산성이 낮기는 하지만 ‘날-’ 역시도 ‘생-’이 가지는 주변의미들을 고르게 가지고 있으므로, ‘생-’과 같은 방식으로 ‘날-’의 주변의미도 기본의미와의 관련성, 즉 유연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 ㄱ. 익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날감, 날김치, 날내 등

ㄴ. 물기가 마르지 않은: 날것, 날고기, 날고추, 날고치, 날나무, 날벼, 날보리, 날장작 등

ㄷ. 가공하지 않은, 열처리를 하지 않은:

① 날가죽, 날것, 날기와, 날땅, 날바탕, 날옷, 날종이 등

② 날가루, 날간, 날간장, 날감자, 날것, 날계란, 날고구마, 날고기, 날고추, 날곡식, 날달걀, 날된장, 날떡, 날미역, 날반죽, 날밤, 날수수, 날쌀, 날전복, 날젓, 날콩, 날팔 등

(16ㄱ)은 ‘생-’이 가진 의미인 (3ㄱ)에 대응되고 (16ㄴ)은 (3ㄴ), (16ㄷ)은 (3ㄷ)에 대응된다. (16ㄷ)도 ①은 먹을 수 없는 대상과 결합한 ‘날-’의 예이고, ②는 먹을 수 있는 대상과 결합한 ‘날-’의 예이다.

위의 예 중 ‘날것, 날고기, 날고추’는 ‘말리거나 익히지 않은 것, 말리거나 익히지 않은 고기, 말리거나 익히지 않은 고추’를 의미하므로 (16ㄴ)과 (16ㄷ)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sup>25)</sup> ‘날반죽’은 ‘찬물로 하는 떡 반

25) ‘날고기’는 ‘생고기’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기본의미에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그런데 ‘날고기’는 ‘짐승이 먹는 고기, 즉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적당히 자르거나 손질하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사자가 날고기를 먹을 때 날고

죽'으로서 반의어가 '익반죽'이므로 열처리를 하지 않은 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3ㄱ), (16ㄱ)과 (3ㄴ), (16ㄴ)의 의미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3ㄱ)이나 (16ㄱ)은 어근 자체가 숙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3ㄴ)이나 (16ㄴ)은 어근에 도구나 열처리 과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sup>26)</sup> 즉, '생감, 생김치'와 '날감, 날김치'의 '생-'과 '날-'은 아무런 가공 장치 없이 익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생가죽, 생땅, 생감자, 생것, 생고구마, 생고기, 생된장, 생미역, 생밤, 생전복, 생젓, 생콩'과 '날가죽, 날땅, 날감자, 날것, 날고구마, 날고기, 날된장, 날미역, 날밤, 날전복, 날젓, 날콩'의 '생-'과 '날-'은 도구에 의해 가공되거나 불을 통해 익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합하는 어근은 동일하지만 어근 결합 이후에 접두사가 가지는 의미는 '생-'과 '날-'에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주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진 예로는 '날젓'과 '생젓'을 들 수 있다. '가공하지 않은 사람의 젓'이라는 의미를 가진 '날젓'과 '생젓' 중 '생젓'만이 '익지로 일찍 떼는 젓'이라는 주변적인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지는 것이다.

같은 어근을 공유하지만 '생-'과 '날-'이 결합한 예에 대해 사전에 따라 의미 기술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의 하나인 '날나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살아 있는 나무'로 기술되어 있으나 『우리말큰사전』에는 '벤 뒤에 아직 마르지 않은 나무'

기를 먹고 사자가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신다. <스포츠서울, 2006년 9월 30일>과 같은 예에서 '생고기'와 차별화되는 '날고기'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생김치, 생나물, 생쌀'을 모두 '익지 아니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생가죽, 생맥주, 생모시'를 '가공하지 아니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나물, 생쌀, 생맥주' 등은 모두 '가공하지 않은'에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 '생김치'만 '자연적으로 익지 아니한 김치'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로 기술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생나무’는 ‘살아 있는 나무’와 ‘베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나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생나무’는 아직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므로 의미 기술에 통일성이 있지만 ‘날나무’는 그 빈도가 높지 않아서 사전마다 의미 차이를 보이며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sup>27)</sup>

기본의미로 쓰인 ‘날-’의 예는 ‘생-’의 예보다 현저히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의미로 쓰인 ‘날-’의 예는 ‘생-’의 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다. 그러나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이 가진 세 부적인 주변의미들을 ‘날-’도 가지고 있다. 다만, 두 접두사와 공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과 (16)의 의미로 쓰인 ‘생-’과 ‘날-’이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근은 ‘가족, 감, 감자, 고구마, 고기, 김치, 나무, 된장, 땅, 미역, 밤, 장작, 전복, 젓, 콩’ 등으로 아래에서 제시할 의미로 쓰인 경우보다 공유하는 어근의 수가 월등히 많다. 이러한 사실은 ‘익거나 말리거나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생-’과 ‘날-’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과 ‘날-’이 구체적인 대상에 부여하는 기본적인 의미들을 같은 어근에 부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의미가 추상화나 비유를 통해 응용된 주변의미들은 특징적인 어근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과 ‘날-’이 공통적인 어근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접두사 ‘생-’이 쓰인 표제어보다는 ‘날-’이 쓰인 표제어의 수가 상대적으로 확연히 적은 경우는 ‘살아 있는, 처음인, 어이 없이 일어난, 공연히 하는, 죄가 없는’의 의미를 가진 ‘날-’이 쓰인 경우이다.<sup>28)</sup> 그 예는

27) 1960년대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5만 단어를 뽑아 표제어로 실은 『연세한국어사전』에는 ‘생나무’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큰사전』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날나무’는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다.

28) 그 예가 적기는 하지만 ‘생-’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주변의미들을 ‘날-’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날-’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어에서 제한적인 쓰임을 보이는 명사 ‘날-’과는 구별될 수

아래와 같다.

- (17) 살아 있는: 날거미 등
- (18) 서투른: 날술 등
- (19) 어이 없이 일어난: 날벼락 등
- (20) 공연히 하는: 날돈, 날주정 등
- (21) 죄가 없는: 날벼락 등

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서 ‘날-’이 ‘살아 있는, 산 채로,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의 의미로 쓰이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어인 ‘날거미’ 정도가 ‘살아 있는’의 의미를 가진 ‘날-’이 결합한 예이다. ‘살아 있는’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 예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일단 북한어인 ‘날거미’를 제시하였다.

‘생것’과 달리 ‘날것’의 ‘날-’에는 ‘살아 있는’의 의미는 확인되지 않고 ‘열처리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의 의미로 쓰인 예가 다수 확인된다. ‘생것’의 ‘생-’은 ‘날-’과는 달리 한자어 ‘생(生)’이 가진 ‘살아 있는’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22)는 ‘익힌 것’과 대비되는 ‘날것’의 예이고, (23)은 ‘살아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생것’의 예이다.

- (22) 프로슈토에는 프로슈토 크루도(날것)와 프로슈토 코토(익힌 것)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슈토라 하면 프로슈토 크루도를 일컫는다.

<세계일보, 2007년 1월 19일>

- (23) 어차파 후라이팬에 구워먹는 대하구이는 생것이든 냉동이든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마이프라이데이, 2007년 1월 19일>

‘생것’이 (23)과 같이 ‘살아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그

---

있다. ‘날로’는 ‘날’이 명사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어형으로 이러한 명사로서의 ‘날’은 생산성이 거의 없어서 폐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창섭, 1998:10). 명사로서의 ‘생(生)’도 국어에서는 ‘생으로’ 등에만 한정적으로 쓰인다.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 ‘날것’은 ‘살아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날것’뿐만이 아니라 ‘생것’도 ‘살아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쉽게 쓰이지 않는 것은 ‘생-’이 가진 ‘살아 있는’이라는 의미가 주변적인 의미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인 ‘생(生)’은 ‘살아 있는’이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지만, 접두사 ‘생-’은 ‘살아 있는’이라는 주변어미보다는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기본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생-’의 경우와는 달리, 접두사 ‘날-’이 ‘처음인, 새 것인,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트이지 않은, 날 때부터인’의 의미를 가진 채 결합어를 이룬 예도 찾기 어렵다. ‘일에 서투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채 결합어를 이룬 경우는 ‘날술’ 등이 확인될 뿐이다. ‘날술’은 술을 갖 배워서 서툴게 마시는 술을 의미하는데 ‘날술’은 ‘생술’이 가진 의미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 ‘생술’이 가진 의미 전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날-’은 주변어미로의 확대가 ‘술에 서투른’에 머물렀지만 ‘생-’은 ‘술에 서투른’ 이외에도 ‘공연히 마시는’이나 ‘안주 없이 마시는’으로도 확장되어 쓰일 수 있다.

‘날-’은 ‘생-’과는 달리 ‘공연히 하는, 일부러 하는, 억지를 부리는’의 의미를 가진 채 명사와 결합한 예도 적은 편이다. (20)의 ‘날돈’과 ‘날주정’ 정도가 ‘공연한 일에 드는 돈’과 ‘공연한 주장’의 의미로 쓰일 뿐이다. 이러한 ‘날돈’의 ‘날-’은 ‘생돈’의 ‘생-’과 동일한 주변어미로 쓰인 예이고, ‘주정’은 ‘날-’과 결합된 예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19)의 ‘어이 없이 일어난’이나 (21)의 ‘죄가 없는, 죄가 없이 당하는’의 의미로 쓰인 ‘날-’이 ‘벼락’과 결합한 ‘날벼락’도 ‘생벼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날벼락’은 ‘아무런 죄도 없이 맞는 벼락’을 의미하는 것에 한정하고, ‘호된 꾸지람이나 재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날벼락’은 ‘벼락’에 ‘날-’이 붙어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날벼락’이나 ‘벼락’ 모두 비유적으로 호된 꾸지람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지, ‘날벼락’이 ‘벼락’보다 ‘더 호된’ 꾸지람이나 재앙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날벼락’은 아래의 (24)와 같은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생벼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의 제시된 (19), (20), (21)의 의미들은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19)의 ‘어이 없이 일어난’과 (21)의 ‘죄가 없이 당하는’에서는 피동적인 의미가 확인되지만 (20)의 ‘공연히 하는’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적용된다. 이렇게 의미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19)와 (21)은 ‘벼락’이라는 어근을 공유하지만 이들과 의미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20)과는 어근을 공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생-’의 예인 (7), (10)과 (9)에서도 확인된다. 피동적인 의미를 가진 ‘생-’이 쓰인 (7)과 (10)은 ‘생귀신, 생벼락’과 같은 예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24)는 ‘날-’의 특징적인 쓰임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 (24) 그 특성만 가진: 날강도, 날건달, 날구역, 날도둑, 날도둑놈, 날도둑질, 날도적, 날도적질, 날사기꾼 등  
(25) 다른 것이 없는: 날가지, 날바늘, 날봉당 등

접두사 ‘생-’과 비교하여 접두사 ‘날-’이 가진 특징적인 의미는 ‘순화나 가공될 수 없는 성질이 그대로 있는, 다른 특성이 없이 그 특성만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보다 더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보다 더 높은 결합 빈도를 보이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추나 마늘을 익히면 그 매운 정도가 덜해지듯이 어떤 대상이 가공이 되면 본래의 성질이 순화된다고 보았을 때 가공 이전에는 순화 이전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공을 거쳐 어느 정도 순화된 것보다 가공되지 않은 채 더 강한 특성을 가진 것을 표현할 때에도 접두사 ‘날-’이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날-’의 주변어미는 기본어미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다의 관계에서 보이는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어미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4)에서 ‘날강도’는 강도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강도이므



로 보통의 일반적인 강도보다 더한 강도성(強盜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날구역’ 역시도 ‘전혀 완화될 수 없는 메스꺼운 느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헛구역질’의 북한어인 ‘생구역질’은 실제로 게우는 것 없이 공연히 구역질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날구역’에는 메스꺼운 느낌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특징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날-’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들과만 결합한다. 이러한 후행 어근의 특성은 ‘생-’과 결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4)의 ‘날-’ 결합어들은 ‘강도, 건달, 사기꾼’과 같이 모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들인 데 반해, ‘생-’의 경우에는 ‘도둑, 도적’과 같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들과 ‘급살, 시치미’와 같이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모두 쓰일 수 있다.

또한, 접두사 ‘생-’과 결합한 ‘생도둑, 생도적’은 (10)과 같이 ‘억울하게 도둑이나 도적의 누명을 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날-’과 결합한 ‘날도둑, 날도적’은 ‘일반적인 도둑이나 도적보다 더 순화되지 못한 도둑이나 도적’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 이는 앞서의 ‘생젓, 날젓’과 같이 동일한 어근을 취하지만 접두사 ‘생-’과 결합하느냐, ‘날-’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주변어미의 추가 여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접두사 ‘날-’ 결합어에도 ‘날-’이 (25)와 같이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 ‘날가지’,<sup>29)</sup> 날바늘’과 같은 예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들은 (24)의 ‘순화나 가공될 수 없는 성질이 그대로 있는’의 의미를 가진 ‘날-’과 결합한 ‘날강도, 날구역’ 등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는 ‘날-’의 의미 중 ‘그 특성만 가진’이라는 의미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어근에 작용하는 측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날가지, 날바늘’의 ‘날-’은 ‘가지와 바늘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이지만, ‘날강도, 날구역’의 ‘날-’은 ‘강도가 가질 수 있는 성질과 구역이 가질 수 있는 성질 이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의미

29) ‘날가지’는 잎이 없이 가지만 있는 것을 의미할 뿐, ‘생가지’와 같이 물기가 마르지 않은 가지나 살아 있는 나무의 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다. 즉, 전자는 ‘주변이나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이 없는’의 의미이고, 후자는 ‘그 속에 추가되는 것이 없는’의 의미이다.

접두사 ‘날-’이 ‘쓸데없는’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생-’보다는 그 수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26) 쓸데없는: 날밤, 날소일, 날장구 등

‘부질없이 새우는 밤’이라는 의미의 ‘날밤’과 ‘부질없이 하루하루를 보냄’을 의미하는 ‘날소일’, ‘부질없이 치는 장구’라는 의미의 ‘날장구’는 ‘생입’의 ‘생-’과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부질없는, 헛된’의 의미를 가진 ‘날-’이 결합된 것이다.

‘날소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가진 ‘날-’이 결합한 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의 ‘날-’은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날장구’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가진 ‘날-’이 결합한 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부질없이 치는 장구’로 되어 있으므로 ‘날장구’도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가진 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가공하는 것과 관련짓는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쓸데없는’의 의미를 가진 ‘날-’은 ‘가공하지 않은’에서 파생된 주변어미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이고 1차적인 의미가 ‘날-’이 가진 기본어미라면 그러한 기본어미에서 추상적인 행위나 상태로까지 그 쓰임이 확대되었을 때 그 기본어미가 응용된 주변어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날-’이 특수한 쓰임을 보이는 예이다.

(27)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 날상가, 날상제, 날송장 등

위의 (27)과 같은 예에서와 같이 접두사 ‘날-’은 ‘생-’이 가지지 않은

의미인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역시 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날-’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주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이 가질 수 있는 주변어미의 대부분은 ‘날-’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다만, ‘날-’은 그러한 주변어미를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생-’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양혜(2004:293)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날-’의 비생산성은 ‘생-’과 공유하는 의미 영역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미들을 ‘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날돈, 날술, 날벼락’의 ‘날-’은 ‘생돈, 생술, 생벼락’의 ‘생-’과 동일한 주변어미로 쓰였는데, ‘날돈, 날벼락’과 ‘생돈, 생벼락’은 완전한 의미의 일치율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날-’이 가지는 특징적인 의미인 ‘그 특성만 가진’의 의미에 대해서도 ‘날-’이 아니라 ‘생-’이 선택되어 ‘생초보’와 같은 신조어가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날초보’도 쓰이지만 그 빈도는 ‘생초보’가 훨씬 높아서 국립국어원의 신어 목록에는 ‘생초보’만 등재되어 있다. ‘날-’은 전체적으로 주변어미로 쓰인 예가 적으므로 ‘날-’이 특징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의미로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에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생-’이 선택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 4. 결 론

지금까지 접두사 ‘생-’의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그 주변어미들을 해석하고 ‘생-’과 유의 관계에 있는 ‘날-’의 세부적인 의미들을 ‘생-’의 의

30) 접두사 ‘생-’이 가진 ‘다치지 않은, 멀쩡한’이라는 의미를 ‘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에 ‘날-’은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특징적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들을 기준으로 재확인하였다.

‘생-’과 ‘날-’은 공통된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변 의미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생-’이나 ‘날-’은 물리적인 대상을 익히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음을 기본 의미로 가지는데, ‘생-’이나 ‘날-’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한 일의 결과로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함으로써 주변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생-’의 생산성은 ‘날-’을 크게 앞질러서 ‘생-’은 여러 가지 주변 의미를 가지고 많은 파생어를 이루므로 기본 의미와 주변 의미의 유연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만, ‘날-’은 ‘그 특성만 가진, 순화나 가공될 수 없는 성질이 그대로 있는, 원래의 것보다 더한’ 등의 의미로 쓰일 때에 ‘생-’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제어 : 접두사, 다의성, 기본 의미, 주변 의미, 생산성, 유연성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편(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김계곤(199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김창섭(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pp.5-22.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우(2006),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pp.91-117.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유현경(1999),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 연구』 9-1, pp.183-

203.

이관규(1989), 「국어 접두사 재고」, 『어문논집』 28-1, pp.339~350.

이광호(1994), 「한자어 접두사의 문법·의미적 기능」, 『문학과 언어』 15-1, pp.27-46.

이양혜(2004), 「한국어 파생접사의 확대 의미 연구」, 『한국어학』 25, pp.267-296.

정경애(2002), 「우리말의 접두사 되기」, 『국어국문학』 21. pp.265-287.

한글학회 편(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이 논문은 2007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7년 6월 11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최형강

소속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주소 : [157-85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방화3차 우림루미아트 101동 607호

전화번호 : 016-571-2310

전자우편 : quark77@hanmail.net

## A Study on the Meanings of Prefix ‘saeng-’ and ‘nal-’

Choe, Hyeong-gang

### [ Abstract ]

The meanings of prefix ‘saeng(생)-’ and ‘nal(날)-’ can be subdivided into the basic meaning and the applied meanings. These basic meaning and the applied meanings constitute polysemy with motivation.

The prefix ‘saeng-’ and ‘nal-’ hold the basic meaning and the applied meanings in common. The basic meaning of prefix ‘saeng-’ and ‘nal-’ is ‘raw’ and the applied meanings are ‘unprepared, unreasonable and so on.’

The productivity of ‘saeng-’ is higher than ‘nal-’, so ‘saeng-’ has many derivative words which have applied meanings. If we coin new words, we may choose ‘saeng-’ which has high productivity. But ‘nal-’ has more examples than ‘saeng-’ in the meaning of ‘barefaced’.

Keywords : prefix, polysemy, basic meaning, applied meaning, productivity, motivation